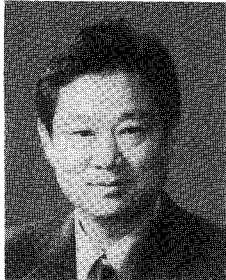


## 자식에게 농가부채라는 엄청난 굴레를 지어줄 것인가!



박 성 훈  
(범양농장 대표)

**한**해가 지나는 이때쯤이면 누구나 한해를 되돌아 본다. 그 동안 본지를 통해서 송년호를 써온 양계인들을 보면 그 분들의 한해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양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듯한 모습에 항상 존경심과 함께 나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지표로 삼아 왔다.

원고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양계업계에 오래도록 몸담아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니 나도 벌써 이렇게 오래 양계업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되돌아보니 작고하신 아버님이 27년 그 후로 18년째 가업을 하고 있으니 2대에 걸쳐 45년째 양계업으로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며 참 오래 했다 생각이 든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양계업계를 위하여 연로 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앞장서 이끄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나도 저 나이까지 양계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고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은 온통 시끄럽기만 한데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의 한숨 소리는 정치문제·노사문제·정치자금문제·경제불황 등에 짓눌려 들리지 않고 김영삼 정부에 농어촌 구조개선 작업에 얻어 쓴 농가 빚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지금까지 고스란히 우리 축산농가의 어깨를 짓누르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년에 걸쳐 119조원이라 천문학적인 돈으로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지만 뒤에는 FTA체결이라는 전략적인 복선이 깔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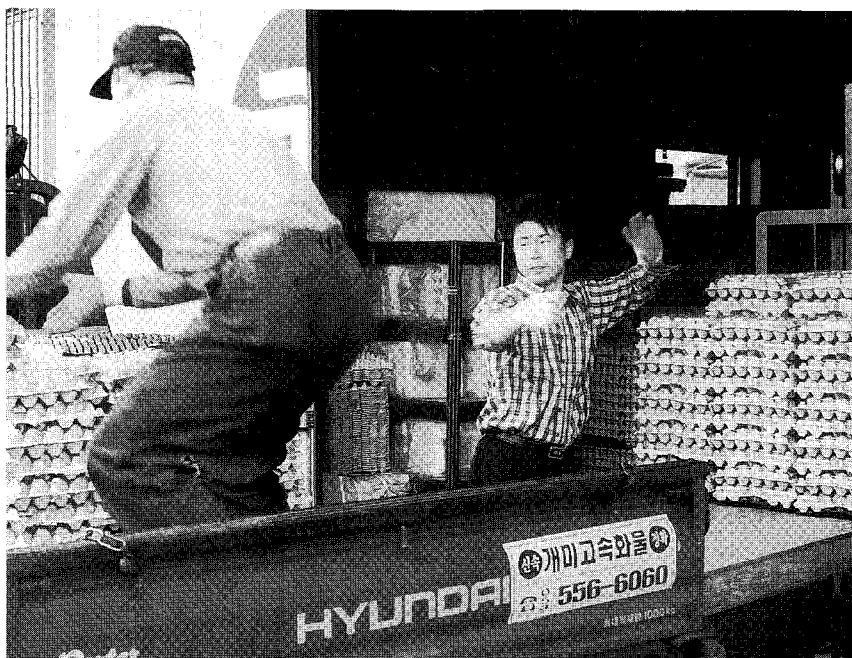
또한 우리 축산농민들도 정부가 주는 돈 잔치에 맞추어 열심히 장단 맞추고 춤추며 신명나게 돈 한번 써보며 살고 자식에게 농가 부채라는 엄청난 굴레를 지어주면 어쩔 수 없이대를 이어서 부채상환을 위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농가가 생길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농촌을 살려 보겠다고 할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정부

의 정책이나 현재 우리가 양계업계의 현안들을 타결하고자 난가 현실화 문제, 생산원가 보존문제 등 수많은 양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것이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정부정책이나 우리 양계업계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는 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하며 18년 세월을 양계업을 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언제 한번 모든 양계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나 상인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노력하여 생산한 물건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보나, 언제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물려주는 가장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서 가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식들이 생기게 하나, 정말로 내가 하는 양계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



나게 한번 농장을 운영 해 봤으면 한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금년 한해의 양계 경기, 현재 우리 농가의 실정, 유통의 흐름, 난가문제 앞으로 우리 채란 업이 나아갈 문제 등 이러한 주제로 쓰고자 했지만 이것은 내 문제, 저것은 내 문제 구분지어 생각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채란업계의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였다. 다만 금년 한해는 채란인 모두 경영압박에 시달려 무척 어려웠던 한해였을 것이다. 금년 말부터 다시 사료가격 대폭 인상이라는 악조건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 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다가오는 해에는 우리 모든 양계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힘차게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소리쳐 보자.

우리도 열심히 이땅을 지키며 가꾸는 평범한 양계인이라고... 양계